

영국 여왕 버킹엄궁 도착...일반인 조문

근위대 의장대 사열 받고 안치

19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서 국장 전세계서 모인 75만명 조문 전망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13일(현지시간) 수도 런던 버킹엄궁에 도착했다. 전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성자일스 대성당에 안치돼 일반에 공개됐던 여왕의 관은 에든버러 공항에서 영국 공군기 편으로 오후 7시께 런던 노솔트 공군장에 착륙했다.

이후 여왕의 관은 버킹엄궁으로 운구돼 새 국왕 찰스 3세와 부인인 케밀라 왕비 등 왕가 일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왕실 근위대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버킹엄궁 내부 보우 룸에 안치됐다. 이날 버킹엄궁 주변에는 밤늦은 시각에도 여왕의 운구차가 지

나는 것을 보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여왕의 관은 14일 오후 5시부터는 나흘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돼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이후 공휴일로 지정된 19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왕의 국장이 엄수될 예정이다. 이후 여왕은 윈저성 내 성조지 교회에서 예식 후 지하 납골당의 남편 필립공(2021년 4월 별세) 곁에서 영면에 든다.

런던에서는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되기 하루 전인 이날 오전 이미 일반 조문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보안당국은 수백만명이 여왕의 마지막 가는 길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줄을 설 것에 대비해 막판 준비를 하고 있다. 줄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템스강변을 따라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영국 정부는 12일 밤부터 조문객들에

게 여왕의 관이 런던에 도착해 지나갈 경로를 따라 밤새워 기다리거나 캠핑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런던에서는 전세계에서 모여든 75만명이 조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여왕의 관을 직접 보고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는 1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찰스 3세 국왕과 부인인 케밀라 왕비는 이날 오전 비행편으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로 가서 힐스버러 성에서 여왕과 북아일랜드의 오랜 관계에 대한 전시회를 관람하고 조문을 받았다.

이후 찰스 3세는 크리스 히튼-해리스 북아일랜드 총독과 정당 대표들을 만나고, 북아일랜드의 회 의장의 조의를 받았다.

찰스 3세 국왕과 부인인 케밀라 왕비는 이후 세인트 앤 대성당에서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와 함께 추도예배에 참석한 뒤 런던으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프랑스 국제 축산무역박람회(SPACE)가 열리는 제35회 국제축산무역박람회(SPACE)가 열리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렌의 박람회장에 양들이 전시돼있다. 박람회는 이날부터 15일까지 3일간 열린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버킹엄궁 주변에 몰려온 시민들이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을 실은 운구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푸틴-시진핑, 정상회담서 우크라이나·대만 등 현안 논의”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서 회담 러시아 “펠로시 대만방문은 도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5일(현지시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라고 러시아가 밝혔다.

13일 로이터,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유리 우사코프 크렘린궁 외교담당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양자 의제 및 주요 역내·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사코프 보좌관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을 한 데 대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며 “다가올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두둔하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로이터는 양자 의제에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 측의 대만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해협에서는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국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중국과 단결된 입장을 강조했다.

우사코프 보좌관은 “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 내에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의 신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이번 회담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15~16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날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등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과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바이든 “미국의 승리”...연일 인플레이션억제법 홍보

“미국산 중고 전기차 구매도 보조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지난 8월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인플레이션 억제한(IRA) 성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EU 등 주요 동맹이 직접적 타격을 입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주요 지점으로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IRA 입법 기념행사에서 “IRA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서 처리된 인프라법에 따라 미 고속도로 전역에 50만 곳의 전기차 충전소가 건설된다는 것도 언급, “이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

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비중이 3배로 확대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오하이오주 인텔 신규 반도체공장 기공식에서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을 언급하며 “행정부에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할 것을 신신당부했다”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최근 각종 연설에서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다”라며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현재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역시 국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이 우려되고 있지만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이산화탄소 배출, 코로나 이전 수준 넘어서”

“기후변화 대응 잘못된 방향”

유엔 “화석연료 무한경쟁 끝내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는 유엔환경계획 등과 함께 분석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세계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은 전염병 대유행 기간 감소했지만, 이후 증가하기 시작해 올해 1~5월의 경우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늘었다. 전염병 대유행이 발발한 2020년의 경우 경제봉

쇄와 여행 제한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전례 없이 5.4% 감소했었다.

보고서에서 지난 7년은 역사상 가장 더웠던 기간으로 분석됐고, 앞으로 2026년까지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나올 가능성이 9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까지 가장 무더운 해는 2016년이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지구 연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1도 상승한 상태라면서, 2026년까지 1.1도에서 1.7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예상을 담았다.

1.5도 이내 상승으로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목표가 향후 몇 년 내에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